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18년 9월 16일 (셋째 주일)

성경본문 : 행20장 33-38절

설교제목 :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오늘 본문은 바울의 에베소 장로들을 향한 고별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고별설교의 핵심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삼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본문에 ‘기억하라’로 번역된 ‘므네모뉴온테스’의 뜻은 ‘남아 있다’, ‘머무르게 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것을 잊지 않고 마음에 머무르게 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르쳤던 말씀과 훈계의 내용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기억하라는 의미는 바울이 가르친 내용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위해 자신이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인내하며 그들을 섬기고 가르쳤던 사역의 자세를 기억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면, 에베소 장로들이 바울이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내용들이 무엇이었는지 얼마나 기억하고 있었겠습니까? 가르친 내용은 그렇게 많이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장로들과 교인들이 결코 잊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자신들을 위해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서 내가 삼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사역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단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기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통과 문제를 가지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우셨습니다. 사실, 예수님 편에서 사람들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해도, 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시면 못 고칠 병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자를 보시고 우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하고자 하는 대상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좋은 진리라도 마음이 열려야 받아들입니다. 마음을 여는 것은 그 사람의 고통의 문제 안으로 함께 들어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함께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만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과 필요에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좋은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서로의 아픔과 필요에 마음을 기울여 주고,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사랑과 관심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가치인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 복음에 대한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과 관심을 통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바울이 기억하길 원하는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33-35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에베소 교회 내의 비방자들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거둔 구제 헌금 중 일부를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유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 사역기간 동안 천막을 만드는 일을 통해 자신의 필요를 충당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써, 경제적 필요를 교회로부터 부양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마저 포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필요나 경비뿐만 아니라, 동역자들의 경비까지 바울이 부담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렇듯 물질로도 약한 사람들 도와줌으로써 받는 삶보다 주는 삶이 훨씬 복되다는 것을 모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에서 강조된 것은 바울의 삶을 에베소 장로들이 다 알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어떻게 행하여 살아 왔는지, 신앙생활하는지를 사람들이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하며 사는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참고 시139:1-4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피 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피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기억을 전달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바울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35절에서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35절에서 ‘모본을 보이다’는 헬라어 ‘**ὑποδείκναι**’는 ‘**눈앞에 직접 보여주다**’, ‘**실물 교육을 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입으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직접 삶으로 보여주며 가르쳤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에베소 장로들이 본받아야 할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언급한 **기억하여야 할지니라**는 명령은 에베소 장로들 역시 교인들에게 이와 같은 모본의 삶을 살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어느 때나 여러분을 기억하는 자녀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본을 보여 주었으니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권면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과 신앙이 사람들과 하나님께 아름답게 기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살펴보기

- 1) 본문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삼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에서 바울이 기억하라고 한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2) 예수님은 병자를 보시고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우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말씀 나누며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개인적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모범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온 분들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이 계실 것입니다. 혹은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기억해주실만한 자신만의 신앙의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